

##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담당자:공익법센터어필 정신영 변호사 02-3478-0529, sychung@apil.or.kr)
제 목	한국 및 해외 단체들이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를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진정
일 자	2014년 12월 2일(총 7쪽)

## 보 도 자 료

### 대우 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가 인권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해 한국/유럽 단체들이 공동 진정서를 제출

1.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의 자회사에서 매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수확기에 일어나고 있는 성인과 아동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과 해외의 단체들은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또한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연루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과 해외의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주선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연락사무소에 12월 3일에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되며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진정서는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에도 동시에 제출됩니다.

4. 2012년 프랑스의 연락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하여,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선례에 입각하여 진정인들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자회사 운영이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한국과 노르웨이의 연락사무소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 진정인들은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에게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아래에 한국 및 해외 단체들이 공동으로 배포하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진정서에 대한 공동보도자료의 영문 및 국문본을 첨부합니다. (조폐공사 진정에 대한 공동보도자료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대한 진정서의 영문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 보도 자료 >

###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하여 한국/유럽단체들이 공동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서 제출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코튼캠페인과 해외한국기업감시에서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OECD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프랑스 NCP가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목화의 거래가 OECD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대우인터내셔널과의 분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한다.

진정을 통하여 진정인들은 NCP가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진정인들은

이와 함께 대우의 모회사인 포스코에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며,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 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에게도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대우인터내셔널의 성인 및 아동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OECD NCP 진정

**어디에:** 한국 및 노르웨이 OECD NCP

**언제:** 2014. 12. 3.

**누가:**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화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강철그룹으로서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이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이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한국의 인권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단체, 에너지 및 환경정책 단체, 노동조직 및 단체들간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각 단체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한국 다국적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nti-Slavery International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인권기구로서 지역, 국가, 국제적 레벨에서 전세계의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Cotton Campaign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헌신된 인권, 노동, 투자자와 회사들의 전세계적 연합체이다.

**배경:** 세계 5위의 목화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산업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는 국민들을 국가 정책을 통하여 강제노동에 종속시키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매해, 우즈베크 정부는 농민들에게 목화 재배를 강요하고, 수백만의 성인과 아동들을 수확에 동원하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는 적어도 미화 십억불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모든 수익은 정부 관리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2014년에 또 다시 강제노동 제도를 활용한 것이 수확기의 마무리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크 목화의 5%를 매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투자한 다국적기업이며, 현재 한국의 화폐 제작에 소요되는 면필프를 생성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Global KOMSCO Daewoo를 포함하여 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는 그 대가로 대우에게 할인된 목화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 혜택 및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와 코튼캠페인은 2012년부터 대우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우즈베크에서의 운영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대우는 계속해서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구매하고 있으며, 공급망에서의 독립적인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대우는 우즈베크에서의 운영을 통해 계속해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의 가입사인 포스코의 자회사이자, OECD 가입국인 한국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우는 공급망과 운영에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대우의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사회적책임에 대한 정책과 일관되도록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자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역할을 다해야한다.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것은 한국정부와 노르웨이 정부 그리고 기타 OECD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위치한 국가들이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1)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한다.<sup>1)</sup>
- 2)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기업 운영에 있어 강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2)</sup>
- 3)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sup>3)</sup>
- 4) 기업이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sup>4)</sup>
- 5) 실제적, 잠재적 인권 침해를 파악, 예방,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한다.<sup>5)</sup>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진정을 통해 한국과 노르웨이 NCP가 중재를 하고, 대우의 우즈벡에서의 강제노동 이슈에 대해 대우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대우가 즉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적 권고들이 포함될 것이다.

대부분의 우즈벡 목화는 중국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회사들로 판매가 된다. 세계화된 경제체제는 우즈벡 목화가 포함된 의류가 전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50개가 넘는 세계의 브랜드들과 소매업자들은 공개적으로 우즈벡에서의 착취가 끝날 때 까지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Nike, H&M, Ikea, C&A, Jones Group, Michale Kors등의 소매업자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그들의 공급망에서 제외시켰다. 우즈벡에서 가장 큰 목화 처리자로서 강제노동제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과 코튼 캠페인은 미국법하에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

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2011), Ch. II (A)(2)  
2) Id., Ch V (1)(d)  
3) Id., Ch. II (A)(11)  
4) Id., Ch II (A)(12) Ch. IV(1)(3)  
5) Id., Ch. II (A)(10)

대우인터내셔널을 미 국무부에 제소하였고, 미 국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

## MEDIA ADVISORY FOR DECEMBER 3, 2014

### CONTACTS:

In Seoul, South Korea, for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Shin Young Chung (Korean, English): +82.0.10.4147.9740; or [sychung@apil.or.kr](mailto:sychung@apil.or.kr).

In London, United Kingdom, for Anti-Slavery International, Klara Skrivankova (English, Czech): +44.20.750.189.20; or [k.skrivankova@antislavery.org](mailto:k.skrivankova@antislavery.org)

In New York, USA, for the Cotton Campaign, Matthew Fischer-Daly, (English, Spanish): +1.347.266.1351 or [cottoncampaigncoordinator@gmail.com](mailto:cottoncampaigncoordinator@gmail.com). Follow on [Twitter@CottonCampaign](https://twitter.com/CottonCampaign)

### *Petition to the OECD Seeks to End...*

## DAEWOO'S USE OF COTTON HARVESTED WITH FORCED & CHILD LABOR IN UZBEKISTAN

Petition requests mediation by the National Contact Point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rom  
South Korea and Norway

A petition aimed at ending Daewoo's publicly admitted use of forced child labor in Uzbekistan's cotton harvest ( , , ) will be submitted by Cotton Campaign member, the Korean Trans 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s South Korean and Norwegian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The KTNC requests that the NCPs mediate the dispute with Daewoo International in the wake of the . by OECD NCP of France that trade of cotton produced with forced child labor violate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 their appeal, the petitioners ask the OECD NCP to assess the breaches of the Guidelines and appropriate resolution. They also appeal to Daewoo's parent company POSCO, to ensure its subsidiary fulfill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 holding shares of Daewoo,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to pressure the company to act.

**What:** OECD NCP petition concerning Daewoo Corporation for profiting from forced labor of children and adults

**Where:** OECD NCP offices of South Korea and Norway

**When:** December 3, 2014

**Who:**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is the largest processor of cotton in Uzbekistan. POSCO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steel companies and parent company of Daewoo.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NPS) and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 is an institutional investor in Daewoo International. KTNC Watch is a network of legal policy and advocacy organizations that monitor and advocate for Korean corporations to be accountable for their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s worldwide. Anti-Slavery International is the world's olde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works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eliminate all forms of slavery around the world. [The Cotton Campaign](#) is a global coalition of human rights, labor, investor and business organizations dedicated to ending forced labor in the cotton sector of Uzbekistan.

**Background:** Cotton is a state-controlled business in Uzbekistan, the world's fifth largest cotton exporter, and the Uzbek government remains one of very few around the world that subjects its citizens to forced labo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tate policy. Each year, the government forcibly mobilizes farmers to grow cotton and more than a million men, women and children to harvest it. The Uzbek government takes in at least \$1 billion in cotton profits annually, but all of it goes into an extra-budgetary fund to which only the highest government officials have access. The government once again used the forced labor system of cotton production in 2014, as documented in this [report](#) at the conclusion of the harvest.

Daewoo buys 5% of all of Uzbekistan's cotton, was the first multinational company to invest in Uzbekistan in the 1990s, and has expanded from one to three factories, including Global KOMSCO Daewoo, which produces cotton pulp used to [manufacture South Korea's currency](#). In return, the Uzbek government provides Daewoo discounted cotton prices, tax incentives and preferential loans. The KTNC Watch and the Cotton Campaign have engaged Daewoo directly since 2012. The company has steadfastly refused to cease purchasing forced-labor cotton and to conduct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ing of its supply chain in Uzbekistan, yet repeatedly admitted to purchasing cotton produced with forced and child labor ([2012](#), [2013](#), and [2014](#)).

As a company owned by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POSCO, and headquartered in a member stat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outh Korea, Daewoo is responsible for avoiding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its operations and supply chain. As an institutional investor of Daewoo International, NPS and NBIM should, consistent with their stated policy commitment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se its leverage to

press Daewoo International to ensure its subsidiary's operations in Uzbekistan comply with standard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y committing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Norway and the other OECD member states have a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by working proactively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headquartered in their countries:

- (1) Respec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 (2) Take adequate steps to ensure that forced or compulsory labor does not exist in their operations.”
- (3) Avoid “causing or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ddress violations when they occur;
- (4) Prevent or mi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directly linked to thei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even when the company has not “contributed to” or caused the human rights violation; and
- (5) Carry out risk-based due diligence to identify, prevent, and mitigate actual and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their petition, KTNC Watch seeks the good offices of the OECD NCPs of South Korea and Norway, to facilitate mediation and issue a “final determination” that addresses the actions taken by Daewoo on the issue of forced labor in Uzbekistan, including recommendations of steps Daewoo can take immediately and in the long-term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Guidelines.

Most Uzbek cotton is sold to companies in China and Bangladesh, and globalized production results in apparel with Uzbek cotton on retail shelves worldwide. More than 150 global brands and retailers have publicly . to boycott Uzbek cotton until the abuses end. Leading retailers, including Nike, H&M, Ikea, C&A, Jones Group and Michael Kors pushed Daewoo International out of their supply chains in protest of the South Korean company's support for the forced-labor system as the largest cotton manufacturer in Uzbekistan. As a result of a [petition filed](#) by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and the Cotton Campaig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s currently investigating Daewoo for alleged violations of U.S. law prohibiting a company from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any product made with forced labor. To learn more about the forced labor in Uzbekistan, please visit [www.cottoncampaign.org](http://www.cottoncampaign.org)

####

---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Ch. II (A)(2)  
. Id., Ch V (1)(d)  
. Id., Ch. II (A)(11)  
. Id., Ch II (A)(12) Ch. IV(1)(3)  
. Id., Ch. II (A)(10)